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09호 【루계 제26083호】 주체107(2018)년 7월 2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맞이하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수대언덕으로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시고 승리의 7.27을 안아오시였으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 앞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류례없이 간고한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반제혁명투쟁사에 가장 빛나는 페지를 아로새기시고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격정속에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도 그리움의 대하가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벨지끄조선친선협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벨지끄조선친선협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27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불세출의 령장, 희세의 군사전략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21일 스위스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행사장에 모셔져있었다.

행사에는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성도서들을 보았으며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5년전 불세출의 령장이시며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력사적승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인민들과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나라들에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진두에 모시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영원할것이다.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조선의 승리전통을 빛내여갈 계승자들의 대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후 지난 5년간 연 130만여명 참관

우리 당의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도덕의리의 상징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훌륭히 일떠선 때로부터 5년이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조국보위성전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건설되였다.

주체조선의 승리전통과 더불어 길이 빛날 영웅전사들의 넋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찾아 지난 5년간 연 130만여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됩니다.》

인민군렬사추모탑을 중심으로 세워진 문주와 화환진정대, 영웅전사들을 추모하는 헌시비, 군상들앞에서 참관자들은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금별로 빛나는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되새겨보면서 전쟁로병들은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인민군용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애국공적을 조국청사에 값높이 새겨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꽃다발과 꽃송이를 정히 들고 렬사묘를 찾은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이 있어 렬사들의 생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 영생의 진리를 폐부로 절감하며 병사수첩에 영웅전사들의 이름을 한자한자 써넣었다.

그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육탄이 되여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전세대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을 고귀한 유산으로 간직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영웅들의 넋이 살아숨쉬는 렬사묘에서 각계층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싸운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 장태화영웅을 비롯한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모습을 전승세대의 모습으로 소중히 새겨안았다.

그들은 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각 지 당 조 직 들 에 서

각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기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참관 등 거점을 통한 교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벌려나갔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당,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전승혁명사적관 등에 대한 참관사업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천재적 군사전략가로서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강계시, 만포시, 장강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자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연풍혁명사적지, 고산진혁명사적지, 향하혁명사적지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그에 대한 참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강원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들에 대한 참관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사적교양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참관자들로부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굳은 결의를 가다듬도록 하였다.

평성시, 회창군, 대동군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안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주별, 월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백송혁명사적지, 성흥혁명사적지, 팔청혁명사적지 등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으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통해 더 잘 인식하도록 하였다.

천만의 심장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의 사상교양사업은 도록해설모임, 영화감상발표모임, 읽은책발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도 실속있게 진행되였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조직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운영에 큰 힘을 넣도록 하는 한편 도록해설모임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는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갔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아래당조직들에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사업을 짜고들고 혁명적인 영화들과 소설들을 가지고 감상발표모임도 조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숭고한 인민적 풍모를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에 전승절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시가요무대, 이동해설강의, 방송편집물을 통한 교양 등 화선식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함경남도와 량강도,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몸소 발표하신 교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과 백두산절세위인의 탁월한 령군술과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도서들과 탁상교양자료들에 대한 해설모임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전승업적교양사업의 실효를 더한층 높여나갔다.

이밖에도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 공화국영웅,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이야기모임, 전승업적을 주제로 한 예술선전활동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모든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와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로 가슴끓이게 하였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진행한 절세위인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전승세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사상교양사업은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본사기자 윤 명 철

로병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적극 진행

각 지 의 보 건 일 군 들

전국의 보건부문 단위들이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전쟁로병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기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는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보건성과 각 도인민위원회의 해당 일군들은 의료일군들속에 들어가 청춘을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 게기를 통하여 꾸준하게 진행하여왔다. 보건성의 일군들은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자주 조직하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기 위해 애쓰는 단위들을 찾아내여 전국에 널리 소개하는 한편 전쟁로병들이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에 넘쳐 사회주의제도에서 만복을 누릴수 있도록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또한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단위들에서부터 전쟁로병들의 건강관리를 보다 책임적으로 하여 그들이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폐부로 간직하고 삶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어왔다.

류경치과병원에서는 개원후 7천여명의 전쟁로병들에 대한 치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시기 병원에서는 당에서 그처럼 아끼는 전쟁로병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치과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의료일군들의 실력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도높이 벌리였다.

오늘날 환자에게 바쳐지는 정성은 높은 실력이 안받침될 때 빛이 난다는 판점을 지니고 이곳 의료일군들은 전자도서실을 수시로 찾으면서 최신문헌자료들을 습득하고 높은 수준에서 로병들에 대한 치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아껌없이 바치였다. 송성동무를 비롯한 보철과의 의료일군들은 당의 뜨거운 사랑이 전쟁로병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운신하기 힘든 대상들은 직접 찾아가 치료해주는 이동의료봉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만경대구역의약품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전쟁로병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며 그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소장 양춘경동무를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은 구역안의 전쟁로병들을 모두 장악한데 맞게 호담당의사들과 힘을 합쳐 그들의 병상태도 알아보면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보약제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잘 짜고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은 물론 자주 팔골1동과 팔골2동, 만경대동을 비롯하여 구역안의 여러 동들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들의 집을 찾으며 친혈육의 정을 두터이하고있다.

이러한 미풍은 평양시안의 여러 병원들과 진료소, 의약품관리소, 고려약꽁장들에서도 높이 발양되고있다.

평천고려약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전쟁로병들에게 많은 보약제들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다.

올해 2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 로병들에게 많은 보약제들을 안겨주며 그들이 들려주는 전투위훈담도 하나하나 새겨들은 이들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로병강사들과 다시금 만날것을 마음속으로 약속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산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문순옥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약속을 지켜 수십가지 보약제들과 파일들을 정성껏 마련하였으며 그것을 로병들에게 보내주었다.

평양시안의 보건기관들만이 아니다.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각지의 보건일군들도 도안의 전쟁로병들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지고있다는 관점밀에 의료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각 도의 의료일군들은 정상적으로 전쟁로병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대책을 세워주고있으며 그들의 체질에 맞는 여러가지 보약들을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병원을 찾는 전쟁로병들이 불편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었으며 의료일군들이 고상한 품성을 지니고 전쟁로병들에 대한 치료사업에 정성을 다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사랑과 정을 바쳐가며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는 각지 보건일군들의 의료봉사활동은 로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뜨겁게 새겨주며 로병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활기있게 진행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옥 별

위대한 전승업적 태양의 미소와 더불어 영원불멸하리

절절한 그리움과 신념의 맹세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7월의 이 강산에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이 되는 7월 27일 많은 군중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았다.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향한 사람들의 그칠줄 모르는 행렬,

그들속에는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승세대들과 조국의 방선초소를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 경제건설 대진군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손자, 손녀들의 손목을 잡고온 로인들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내 조국의 백승의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전승의 7.27을 최후승리의 7.27로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이날따라 더더욱 깊은 의미로 안겨오는 금빛찬란한 대원수별이 부각되여있는 돌대문을 지나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광장으로 들어섰다.

경건한 마음안고 광장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빛나는 눈동자, 뜨거운 경모의 정…

사랑하는 천만전사, 제자들을 어서오라 반겨맞으시며 온 누리가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사람들은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르느라니 태양상량옆에 형상해놓은 공화국기와 당기가 비상한 의미로 안겨들었다.

원쑤들의 침략의 불길을 완강한 조국수호의 열풍으로 뒤번져놓으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력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저 공화국기와 당기발의 성스러운 기폭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숭엄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65년전 위대한 전승의 환희에 넘쳐 조국의 고지마다에서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만세!〉를 목청껏 웨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저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옵니다. 정말이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을 떠나 그처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만난 대성구역에서 살고있는 박형빈전쟁로병의 진정에 넘친 말이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남다른 위훈을 세운 전쟁로병이였다.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승리자의 자랑을 안고 말하는 로병의 이야기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젖어있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천출위인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다.

수안보, 팡주, 지혜산을 비롯한 불비쏟아지는 전장들에 나가시여 백승의 지략을 펼쳐주시고 전선과 후방을 종횡무진하시며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불사신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신념과 의지의 인간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우리의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를,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인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새겨진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발은 전하고있다고 모란봉구역에서 살고있는 엄복실전쟁로병은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전나무, 분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키높이 자란 나무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염치는 맑은 물우에서 노닐고있는 고니, 기러기, 물오리들…

하지만 뜻깊은 전승절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것은 그 수려한 풍치만이 아니였다.

지금도 그려보느라면 전선통부를 타격하려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대번에 꿰뚫어보시고 적들은 바로 여기를 노리고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예지에 넘치신 모습이 어려오고 싸우는 전선의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다 바치신 천출위인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다.

수안보, 팡주, 지혜산을 비롯한 불비쏟아지는 전장들에 나가시여 백승의 지략을 펼쳐주시고 전선과 후방을 종횡무진하시며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불사신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신념과 의지의 인간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우리의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를,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인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새겨진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발은 전하고있다고 모란봉구역에서 살고있는 엄복실전쟁로병은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전나무, 분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키높이 자란 나무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염치는 맑은 물우에서 노닐고있는 고니, 기러기, 물오리들…

하지만 뜻깊은 전승절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것은 그 수려한 풍치만이 아니였다.

지금도 그려보느라면 전선통부를 타격하려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대번에 꿰뚫어보시고 적들은 바로 여기를 노리고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예지에 넘치신 모습이 어려오고 싸우는 전선의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다 바치신 천출위인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다.

수안보, 팡주, 지혜산을 비롯한 불비쏟아지는 전장들에 나가시여 백승의 지략을 펼쳐주시고 전선과 후방을 종횡무진하시며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불사신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신념과 의지의 인간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우리의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를,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인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새겨진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발은 전하고있다고 모란봉구역에서 살고있는 엄복실전쟁로병은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전나무, 분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키높이 자란 나무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염치는 맑은 물우에서 노닐고있는 고니, 기러기, 물오리들…

하지만 뜻깊은 전승절날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것은 그 수려한 풍치만이 아니였다.

지금도 그려보느라면 전선통부를 타격하려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대번에 꿰뚫어보시고 적들은 바로 여기를 노리고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예지에 넘치신 모습이 어려오고 싸우는 전선의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다 바치신 천출위인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다.

수안보, 팡주, 지혜산을 비롯한 불비쏟아지는 전장들에 나가시여 백승의 지략을 펼쳐주시고 전선과 후방을 종횡무진하시며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불사신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신념과 의지의 인간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우리의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를,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인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새겨진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발은 전하고있다고 모란봉구역에서 살고있는 엄복실전쟁로병은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과 긍지를 그 어디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그토록 엄혹하였던 정세속에서도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총대로 수호하고 계승완성하실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가슴가득 어려왔다.

우리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군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략한 자욱은 또 얼마나 우리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가.

위험천만한 최전방들과 포연이 자욱한 전투훈련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은 천리방선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우리의 공화국기는 푸른 하늘가에 높이 휘날릴수 있었고 마치와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우리의 당기는 자기의 색조를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은것 아니랴.

바로 그래서 이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이룩할 마음과 마음들이 태양의 성지로 더욱 뜨겁게 흐르고있는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온 나날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어떻게 인민과 더불어 영생하시는가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떻게 빛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영원히 혁명의 군복을 벗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수령결사옹위의 한길만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토로하는 조선인민군 군관 박열동무의 말이 절절히 울리였다.

알고보니 그는 가족들과 함께 명절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때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있었다.

우리를 더욱 감동시킨것은 평양외국어학원에서 공부하고있는 그의 딸 박지연학생이 학습과 조직생활도 잘하고 많은 백도라지, 은방울꽃뿌리와 관리도구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주고 백두산밀영고향집과 삼지연혁명사적관에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다는 것이였다.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넘쳐흐르는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가 여기 성지의 광장에 차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미소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열기로 광장은 세차게 달아오르고있었다.

정녕 돌아보면 볼수록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였다.

광장을 나서서 걷느라니 드넓게 뻗어간 수도의 거리들에서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가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비껴담고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휘황한 미래가 마중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승리의 력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7.27은 영원한 조선의 명절로 빛을 뿌릴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남
사진 본사기자 최충성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27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렬사릉들과 렬사묘의 화환진정대에 놓여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박광호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최휘동지, 정경택동지, 김능오동지와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시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이 화환진정들에 참가하였다.

또한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들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보건, 출판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시급기관, 농장, 대학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을 추도하여 묵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과 백승의 전통을 주체혁명의 만년재보로 끝없이 빛내이며 당의 령도따라 1950년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참가자들은 렬사릉들과 렬사묘를 돌아보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환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27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우의탑앞에 놓여있었다.

우의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하여있었다.

화환진정행사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 인민무력성 부상 륙군상장 김형룡동지,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 대외경제성 부상 구본태동지, 조중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일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남동지,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 공현우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외교부대표단,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손님들, 중국류학생들, 화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의탑에 진정되였다.

또한 인민무력성,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중친선협회,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중국외교부대표단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조선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우의탑을 돌아보았다.

이날 평양시 형제산구역, 개성시, 평안남도 회창군, 안주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렬사묘들에도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에

화환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27일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진정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에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이어 그들은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전승의 환희에 넘쳐 도도히 흐른 승리자들의 시위대오…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65년,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여기 김일성광장에 서니 그날에 메아리치던 승리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듯싶다.

가슴벅차오르는 그날의 격동적인 화폭을 그려보느라니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인민들에게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가슴에 파고든다.

우리 조국의 수천수만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조국의 촌토를 수호하는 성전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으며 우리 인민들은 온갖 간난신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뜻깊은 전승절에 천만군민은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시고 우리 인민을 영웅적인민으로 온 세상에 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올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다.

싸우는 전사들을 찾아 불비쏟아지는 멀고먼 전선길을 헤치시며 백승의 지략을 펼쳐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 수령님께서 전화의 나날에 헤치신 전선길은 몇천몇만리이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전선길들에서 세계전쟁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탁월한 전법들과 전술들이 창조되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영웅으로 자라났다.

언제나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과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를 확신했고 멸적의 투지로 가슴 불태웠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위험을 무릅쓰시고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수안보를 찾으시였던 우리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평양에서 수안보까지는 천여리길이였고 그곳까지 가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었다. 줄줄이 폭탄구뎅이로 이어진 길 아닌 길, 밤낮없이 계속되는 적기들의 폭격…

이런 길로 가실수 없다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간절히 아뢰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들 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동무들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결연히 전사들에게로 가는 길에 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차는 불구름이 타래쳐오르는 중화, 황주벌을 누비며 최대속도로 달리기도 하고 어느 한 강가에 이르러서는 물살이 센 여울도하장을 건느기도 하였다.

수안보를 40리가량 앞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승용차는 더이상 전진할수 없었다.

차에서 내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시며 일군들에게 불길이 사그라지기를 여기서 기다릴수 없으니 동무들은 자동차와 함께 에돌아오라고 이르시고 길을 재촉하시였다.

사품치는 강도 건느시고 불타는 마을도 지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수안보에 도착하신것은 평양을 떠난지 이틀째 되는 날 이른새벽이였다.

최전연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뵙게 된 인민군전사들은 놀라움과 함께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전화의 나날에 새겨진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 그 얼마이던가.

군자리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서는 적들은 동무들이 만든 기관단총을 보기만 하여도 손을 든다고, 기관단총으로 인민군대를 다 무장시키면 더 많은 적을 잡을수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위대한 수령님,

허리굽혀 좁은 굴간도 통과하시고 아찔한 수직사다리도 오르내리시면서 한 직장, 한 직장을 다 돌아보시고 믿을것은 오직 동무들밖에 없다고 하시며 무기와 탄약생산에로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전사들이 보고싶으시여 공화국영웅들, 모범전투원들을 친히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선의 영웅동무들이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하였다고 하시면서 몸소 그들을 위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신 전사들은 그이의 자애로운 인품에 매혹되여 자기들의 전투위훈담을 친아버지 앞에서처럼 사랑스럽게 말씀드리였다.

한 정찰병영웅에게는 대담하게 행동한것은 좋으나 위험할번 하였다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걱정하시고 포화속에서 부상병들을 업고 부축하면서 한번에 두명씩 구원한 영웅간호장에게는 정말 힘장수라고 대견해하신 우리 수령님,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용감하게 싸운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에게 손목시계도 채워주시고 이 총에는 혁명선렬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땀이 스며있다고 하시면서 기관단총도 기념으로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세계전쟁사에는 위훈을 떨친 영웅들의 무훈담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처럼 모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수령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함께 하면서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그런 전쟁은 일찌기 없었다.

1211고지전투원들이 격전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린 맹세문의 글줄이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이시여!

원쑤들은 악착스럽게 달려들고있습니다.

허나 항일의 전통을 이은 우리는 비록 몸이 천조각, 만조각이 나는 한이 있어도 한놈의 적도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죽어 묻힐 땅은 있어도 살아 물러설 땅은 한치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습니다.

당신의 전사들이 서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으며 바로 여기에 위대한 기적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과 후방을 종횡무진하시며 무적필승의 지략과 전술을 펼치시여 승리만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불비쏟아지는 준엄한 전화의 그 나날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싸우는 전사들을 무비의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던가.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이 걱정되시여 더운밥과 따끈한 국을 해먹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적구에 있는 한 인민군전사의 가족을 위해 한개 련대의 력량을 동원시킨 구출작전, 전사들을 위해 취해주신 화선휴양…

불타는 고지에서 한명의 전투원이 귀중하던 때 군인들을 소환하여 대학에 보내신 전설같은 이야기이며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시고 세심히 지도하신 이야기,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절세의 위인의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는 전선과 후방의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켜주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원쑤격멸의 함성으로 이어져 승전고를 높이 울리게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

정녕 세계를 경탄시킨 이 력사적인 승리는 탁월한 군사적예지와 전략전술, 뜨거운 동지적사랑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여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주체87(1998)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산진 혁명사적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고산진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인 주체39(1950)년 11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계시면서 전쟁승리를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재진격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전쟁국면의 근본적전환을 마련하신 력사적인 곳이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추억깊이 돌이켜보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그처럼 어려운 때에 조선이 전쟁에서 이기리라고는 누구도 믿지 못했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고산진에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재진격의 전략적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마침내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고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게 된다.

오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위대한 전승의 력사는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을 앞둔 7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 혁명력사에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수령님은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전승령도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그 숭고한 의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전승절을 후세에 가서도 영원히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로, 제2의 해방의 날로 더욱 뜻깊게 경축하도록 의의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화의 그 나날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싸운 전쟁로병들을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다.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우리 전쟁로병들은 영원한 승리자로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

절세위인을 모셔야 전승의 력사가 세세년년 빛을 뿌릴수 있고 전쟁로병들의 삶이 영광으로 꽃펴 날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는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감동깊이 체험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굳히는 철의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승리의 7.27은 강대한 우리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포화속에서 펼치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

강철의 담력과 배짱,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의 빛나는 승리를 확신하시며 조국번영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그처럼 가렬하였던 전쟁시기에 산림자원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해야 한다고 하신 사실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우리 수령님은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라는것을 가슴깊이 느낄수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던 주체42(1953)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산림자원조사단 일군들을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에 파견되였던 조사단 동무들의 보고를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전국적인 조사사업 정형에 대한 개괄보고와 각 도들의 실태에 대하여 자료보고를 하는 조사단성원들의 가슴은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억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산림자원조사단이 처음으로 무어진것은 그해 봄이였다.

전쟁승리를 확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며 그의 철저한 보호육성과 계획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현지조사검열사업을 진행할데 관한 내각지시를 하달하게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산림자원조사단이 조직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림자원조사단에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전선에서 싸우고있던 대학생출신의 군인들도 소환하여 망라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사단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다 귀중하다고 하시며 의료일군들과 무장인원들까지 포함시키도록 해주시고 산림조사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들과 운수수단들도 보장해주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내각의 해당 부문 일군들과 각 대학의 이름있는 교원들, 전문가들,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군인들 그리고 의료일군들과 안전보장성원들 및 후방보장성원들로 구성된 강력한 산림자원조사단이 조직되였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때, 아직도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은 때에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고 이렇듯 강력한 력량의 산림자원조사단을 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정녕 그것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일이였다.

그후 300여명의 산림자원조사단 성원들은 여러개 조로 나뉘여 조국의 주요산발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이날 정치위원회에서 산림자원조사단이 조사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들속에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산림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해서 나무를 심고 잘 관리하는 일을 자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간 산림자원조사단동무들이 귀중한 자료를 얻어냈다고,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조선사람의 힘과 기술로 우리 나라 림상도를 만든 동무들이라고, 정말 수고했다고 하시며 그들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자료는 우리 나라 산림자원을 륜곽적으로 장악한데 불과하다고, 앞으로 산림자원조사사업을 보다 높은 과학기술수준에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회의를 결속하시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진행한 산림자원조사정형을 우리만 알고있을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면 우리 나라 산림을 소개하는 여러가지 소책자들을 많이 써내어 인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식물에 대하여 잎사귀가 몇개요, 무엇이 어떻소라고 그 특징이나 주지 말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식물상과 함께 식물과 인간생활, 식물과 인민경제, 식물과 동물, 식물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식물을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며 그것을 막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주면서 인민들이 자각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게 하도록 책을 써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식물학자들은 수많은 소책자들과 선전자료를 집필하였다.

도서 《조선의 식물》도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서를 친히 보아주시고 잘 썼다고, 조선의 식물을 소개한 첫 책이 잘 되였다고 치하해주시며 전국도서전시회에 전시하도록 해주시였다.

포화속에서 첫 산림자원조사단을 무어주시고 이 땅우에 수려한 산림자원을 마련하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의 푸른 숲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주체전법으로 안아오신 기적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은 전쟁 첫날부터 수많은 비행기를 동원하여 우리의 전선과 후방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이로 하여 우리의 전시생산과 전선수송 그리고 아군의 전투행동은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었다.

주체39(1950)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공중우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비행기와의 투쟁에 고사포뿐아니라 중기관총과 보병총을 비롯한 각종 저격무기를 다 동원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비행기가 내려꽂을 때에도 쏘고 올라갈 때에도 쏘며 개별적으로도 쏘고 집단적으로도 쏘며 전선에서도 쏘고 후방에서도 쏘면 적비행기를 많이 떨굴수 있고 적들이 우리의 상공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할수 있다고 신심에 넘치신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기사냥군조를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적비행기사냥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으며 결과 두해동안에 만도 근 3 000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진정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은 적비행기들을 주동적으로 소멸할수 있게 한 적극적인 반항공투쟁방법이였으며 적비행기와의 투쟁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한 혁명적인 반항공전법이였다.

몸소 그리신 갱도진지도면

주체40(1951)년 6월에 이르러 적들은 전전선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모든 산과 골짜기들은 불바다로 변하고 전선에서는 그에 대처할 전술과 전법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유리한 산악지형조건을 리용하여 방어지탱점들에 공고한 전투용 갱도를 굴설하며 그에 참호를 비롯한 야전측성물들을 배합하여 갱도를 기본으로 하는 방어진지를 끝까지 지켜낼수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한 전법이기때문이였다.

땅크사냥군조운동

주체40(1951)년 8월 새로운 《공세》를 기도한 적들은 우리의 방어전연을 뚫어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적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자면 날을 따라 미친듯이 돌아치는 적땅크들을 소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해 1월에 땅크사냥군조를 조직하여 적들의 땅크가 다니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여러가지 차단물을 만들어놓았다가 적땅크가 멎어선 다음에 습격파괴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483호 《땅크사냥군조 조직과 훈련실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갱도전법은 세계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전법이였으며 적의 강력한 타격으로부터 아군의 유생력량과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들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면서도 적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고 방어진지를 끝까지 지켜낼수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한 전법이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땅크사냥군조들이 조직되였으며 땅크사냥군조원들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반땅크수류탄과 반땅크지뢰를 가지고 이동중에 있거나 집결되여있는 적땅크들을 습격파괴하였다.

이렇듯 실전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땅크사냥군조운동은 적땅크들과의 격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전법이였다.

참으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위대한 승리였다.

본사기자 강 원 남

제일 큰 부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주체39(1950)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어느 한 회의를 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군들에게 빨리 출발준비를 갖추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일군들은 낮에는 적비행기가 너무 날치기 때문에 저녁에 떠나시였으면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꼭 들릴데가 있다고 하시며 길떠날 차비를 독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일행이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전상자병원이였다.

병원에 도착하시는 길로 입원실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전상자동무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감격에 목메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들 한사람한사람의 병상태를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참된 아들딸답게 용감하게 잘 싸웠다고 하시며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전상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였으니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저저마다 간청하였다.

그러한 전상자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상처가 다 나았다고 하면서 전선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다 나은것 같지 않다고, 현재 전상자동무들앞에 나선 전투임무는 다시 초소로 탈려갈수 있도록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제일 큰 부탁이라고 간곡한 어조로 당부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원의 여러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환자치료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어느덧 산골짜기에는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상에 누워있는 친자식을 두고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환자치료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느라 시간을 지체하시였다.

산촌의 밤은 깊어가고 추위에 밤공기마저 얼어들건만 전상자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싶으시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병원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병원을 떠나시면서도 병원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자신께서는 전상자들을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거듭 당부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 타신 차가 멀어질수록 전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사랑이 어려와 병원일군들의 가슴은 더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본사기자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용사들의 그 위훈 우리는 잊지 않으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서

한송이 또 한송이, 한다발 또 한다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민군렬사추모탑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꽃송이와 꽃다발들을 놓는다.

전화의 용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조국땅에서 참된 존엄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후대들이 포연내가 풍길것만 같은 총과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바라보며 영웅전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하늘높이 솟구쳐오른 멸적의 총대에 나붓기는 공화국기발에 새겨진 영웅의 금별메달과 더불어 력사의 진리가 후대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과 그들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금문자로 영원히 기록되여있을것이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여질것이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은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참관자들과 함께 영웅전사들의 묘비들을 돌아보았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는 공화국영웅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되였습니다.》

강사가 가리키는 묘비를 바라보니 공화국영웅 공재화렬사의 돌사진이 안겨왔다.

전선동부의 666고지를 지켜 단신으로 적의 공격을 4차례나 물리치면서 3일간이나 고지를 사수한 수류탄영웅, 우리의 눈앞에 수류탄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적들을 쏘아보는 영웅전사의 불사신같은 모습이 보이는듯싶었다.

소대의 이동을 엄호할 임무를 받은 공재화영웅은 치렬한 전투끝에 분대장을 잃고 고지에 혼자 남게 되였다.

희생된 전우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낼 일념을 안고 그는 적들에게 련속 수류탄벼락을 안기였다.

적땅크들이 배복계선에 들어서자 송해선영웅은 지체없이 땅크우로 뛰여올라가 웃뚜껑을 열어제끼고 반땅크수류탄을 집어넣었다. 숨돌릴새없이 다음땅크로 달려간 그는 반땅크수류탄을 무한궤도안에 밀어넣었다. 순식간에 여러대의 적땅크가 녹아났다. 치렬한 전투끝에 전우들은 모두 희생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명령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온몸을 불태우며 송해선영웅은 마주보이는 산정점에 올라 적들에게 수류탄벼락을 들씌우고 북수탄을 퍼부었다.

가렬한 격전속에 시간이 흘러갈이 어둡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계선을 리탈하여 중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탓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는 한치도 물러설수 없으며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각오를 안고 송해선영웅은 적들을 찾아 산골짜기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적들속에 뛰여들어 수류탄을 던지고 총탄을 날리면서 불사조처럼 싸웠다. 이렇게 그는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였다.

력량상 너무도 엄청난 적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조선인민군 병사의 본때를 보이고 영웅적위훈을 떨칠수 있은 원천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믿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백두의 혁명정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적극 벌려 어러대의 적기를 쏴떨군 리병필영웅, 관무봉남쪽 무명고지전투에 참가하여 넉달동안에 150여명의 적병을 쏘아잡는 위훈을 세운 리형원영웅, 평화적인 도시와 농촌마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에 미쳐날뛰던 가증스러운 적비행기를 10여대나 격추한 용감한 비행기사냥군조원이였던 차호남영웅, 당의 믿음을 인생의 값높은 영광으로 간직하고 언제나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의 항로를 뗀 앞장에서 날았으며 제대후에도 사회주의건설에 모든것을 바친 김제홍영웅,

돌아볼수록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고있는 렬사들모두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이였다.

하기에 우리 당은 그들모두를 한명한명 뜨겁게 안아 이처럼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준것이다.

렬사들이 나서자란 고향은 서로 다르고 최후를 마친 날도 같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오른 곳은 금별메달과 함께 빛나는 가장 값높은 영광의 최절정이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시고 옛날부터 묘에는 표주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명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렬사추모탑과 문주를 무게있게 형상하고 전화의 영웅전사들을 형상한 군상도 잘 세울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진정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에 받들려 참전렬사들의 삶과 위훈은 세세년년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렬사묘를 돌아본 외국의 한 인사는 기폭에 감싸여져있는 총대와 기발우에 부각된 영웅메달이 아주 감명깊다고 하면서 조국을 위해 피흘린 전사들모두에게 안겨준 이 영웅메달은 귀국이 자기의 장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렬사묘향연에 있는 당기와 공화국기발을 보니 정말 감동깊다, 조선로동당이 전사들에게 돌려주는 사랑과 날을 따라 강대해지는 공화국이 있어 렬사들은 오늘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난것이다, 이런 영웅들은 오직 조선에서만 볼수 있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만 조국을 지켜 피흘려 싸운 렬사들의 모습이 가장 값높이 빛날수 있으며 영웅의 금별메달과 더불어 조국결사수호의 넋을 심어주는 참된 삶으로 후대들의 기억속에 길이 간직될수 있다.

영웅들처럼 당과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불같은 맹세를 가다듬는 우리의 가슴속에 인생의 소중한 진리를 깨우쳐주며 헌시비의 글발이 깊이 새겨졌다.

…

이제 유서깊은 이 석박산기슭에도
꽃이 피고지고 단풍은 타고지고
끝없이 세월은 흐르리라
허나 우리 당이 붉은기에
감싸안은 영웅들 그 모습엔
억만년세월도 이끼를 덮지 못하리라
불멸의 그 위훈 만대에 빛나리라!

본사기자 조 경 철

슬기롭고 용감한 정찰병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슬기롭고 용감한 정찰병들은 적후에서 대담하고 령활한 정찰활동을 과감히 벌려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민하고 대담한 전투행동으로

전쟁의 첫 시기 사단지휘부로부터 적들의 작전기도와 방어상태를 알아낼데 대한 임무를 받은 리학문동무를 조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제6보병사단 정찰중대의 3명의 정찰병들은 적련대지휘부가 자리잡고있는 개성시내로 향하였다.

장교복을 입고 적보초에게 빼젓이 다가간 그는 증명서를 보자고 하는 놈의 귀통을 호되게 닫새기고는 유유히 적련대지휘부안으로 들어갔다.

인민군대정찰병들임을 알아채고 권총을 꺼내려는 적련대장놈의 정수리를 쌥싸게 타격한 리학문동무는 서랍안에서 련대무력배치정형과 작전기도를 기록한 문건들이 든 가죽가방을 찾아들었다.

가방을 안고 유유히 현관문을 나선 그들은 마당에 세워져있는 찦차에 올랐다. 잠에 취해있는 적군전사놈에게 리학문동무는 《사단지휘부로!》 하고 큰소리로 웨쳤다. 리학문동무가 안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련대장의 가방이라는것을 알아본 놈은 군말없이 차의 발동을 걸었다.

이렇게 적들의 소굴을 무사히 빠져나온 그들이 입수한 정보는 아군의 전투행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적의 심장부에 뚫고들어가

1952년 10월초 조선인민군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의 한 정찰소대에는 351고지의 남쪽 수십km지점에 있는 적지휘부를 습격하여 적의 작전기도와 무력배치상태를 알아낼데 대한 전투과업이 맡겨졌다.

소대장 김병호동무를 조장으로 하는 정찰조는 적집단이 전개되여있는 골짜기의 맞은편 산중턱에 자리를 잡고 감시를 통하여 적련대지휘부를 알아내였다.

그들은 깊은 밤 전지불을 켜들고 적보초소로 다가갔다.

어둠을 밝히며 전지불까지 켜들고 다가오는 그들을 자기편으로 착각한 보초병놈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통과시켰다.

이렇게 적지휘부까지 손쉽게 들어간 그들은 기기에 있던 적장교와 통역관놈을 생포하여가지고 빠져나와 동쪽으로 뻗은 통선에 올랐다.

포로들의 진술을 통하여 적들의 작전기도와 무력배치상태를 알아낸 그들은 적들의 수색망을 뚫고 유유히 부대로 돌아왔다.

림기응변의 지략으로

1951년 2월 하순 어느 한 구분대의 석취렬소대장은 강원도의 어느 한 일대에 도사리고있는 적들을 습격소멸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적후로 향하였다.

행군도중 소대장은 길옆에 전화선이 늘어진것을 발견하였다. 적들의 대화를 도청하여 새벽에 적고문관이 이곳을 지나간다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도로량옆에 매복하였다가 그놈을 생포하였다.

적고문관놈을 심문하여 얼마 떨어진 곳에서 적 한개 중대가 경계근무를 서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소대장은 《현병대위》로 가장하고 적보초병앞으로 빼젓이 다가가 중대장을 불러오라고 호령했다.

적중대장이 있는 천막안에 들어간 소대장은 교문관이 탄 차가 이곳으로 오다가 개바닥에 빠졌다고 하면서 중대를 비상소집시켜 눈을 쳐내고 차도 빼낼데 대한 《명령》을 주었다.

소대장은 자기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며 그 무엇을 의심했는지 권총갑에 슬그머니 손을 가져가는 적중대장을 가차없이 총으로 쏘아죽였다.

총소리를 듣고 적들이 벌떼처럼 밀려왔다.

소대장은 태연히 의자에 앉아 천막안으로 들어오는 놈에게 《넌 누구야?》 하고 위엄있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1소대장이라는 놈의 말에 석취렬소대장은 너희 중대장은 비상시국에 상급의 지시를 거역했기에 나의 권한으로 처단했다고 하면서 곧 중대를 집합시키라는 명령을 주었다.

그놈들을 끌고 아군이 매복한 지점에 도착한 석취렬소대장은 총 한방 쏘지 않고 놈들을 몽땅 체포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본사기자 리 건 일

혁명적 락관주의의 상징—화선악기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용사들은 전화의 가렬처절한 나날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영웅적위훈을 세웠을뿐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락천적으로 생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은 불타는 고지와 전호가에서 자체로 화선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예술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렸습니다.》

화선악기는 주체40(1951)년 10월 전선동부를 사수하던 방위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전투에 참가하였던 한 전쟁로병은 실화 《나의 화선악기》에서 제손으로 직접 첫 화선악기를 만들 때의 심정을 이렇게 썼다.

《직동령에서의 중대오락회는 매일 밤 노래로 막을 열고 노래로 막을 내리군 하였다. 낮에는 원쑤를 치고 밤에는 승전가를 부르는 전우들의 기세는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였다. 그럴수록 악기생각이 간절해졌다. 우리에게 노래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중대에는 하모니카 한개 없었다. 악기를 마련할 방도란 오직 자체로 만드는것뿐이였다.》

영웅적인 인민군전투원들은 불타버린 고지에서 악기재료도 제작도구도 경험도 없는 형편이였으나 집단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적들의 포탄파편으로 손칼과 대패날, 끌을 만들고 나무와 전선줄을 가공하여 훌륭한 악기들을 만들어냈다.

무슨 악기인들 만들어내지 못했으랴.

가야금, 아쟁, 단소 등 민족악기들과 바이올린, 첼로, 기타, 만돌린…

이 악기들을 가지고 인민군용사들은 전투의 렬참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승리의 신심을 가다듬었다.

전쟁의 마지막해 2월 어느날 한 중앙신문에는 이런 종군기가 실리였다.

《…〈음악연주의 밤〉은 실로 다채롭다. 그 첫머리에 화선악대들이 등장한다. 오동나무를 켜서 만들고 전화선과 명주실오리를 가공한 1번-4번선까지 음조정확한 바이올린, 첼로, 6번선까지의 기타와 퉁소, 피리 등 화선악기의 합주는 화선에서뿐아니라 멀리 후방에서도 절찬을 받고있다.

리종운전사는 화선악기제작에서뿐아니라 지휘의 능수이다. 그의 지휘하에 〈전호속의 나의 노래〉 등 합주를 멋들어지게 넘긴다. 이어서 화선에서 만든 대고, 소고소리가 멀리 울려오는 포성을 억누르고 전투원들의 가슴을 격동시킨다. 드디어 그들은 선창하는 하영팍부소대장을 따라 대합창으로 넘어갔다. 우렁찬 노래소리는 갱도를 흔들며 적진에로 울려퍼진다. 적진에서 이어 포성이 울렸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의 돌격을 막아내지 못하는것처럼 그 우렁찬 합창을 포성은 막지 못하였다.》

그들은 결코 싸우는 고지에서만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세계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화선악기연주회에 참가하였던 전쟁로병들은 지금도 그날에 받아안은 감격과 흥분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주체41(195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각 련합부대들의 예술공연대회에 참가한 인민군용사들은 자기들이 만든 화선악기로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싸우는 조선의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원쑤들이 죽음이 두려워 공포에 질려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이렇게 화선악기를 만들어 승리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를수 있은 사상정신적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기어이 승리한다는 그 억센 신념이 있었기에 앞을 가려볼수 없는 불비속에서도 저희들은 악기를 만들수 있는 정신적여유를 가질수 있었고 노래를 부를수 있는 강철의 힘을 키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있는 한 그 어떤 원쑤도 저희들의 이 노래는 막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찌 화선악기연주회에 참가하였던 한 인민군용사가 터친 격정의 목소리라고만 하랴.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을 안고 싸우는 전사들의 힘은 비할바없이 크며 그들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은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낼수 없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전화의 불비속에서 확증된 이 백승의 진리가 있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은 혁명군가 높이 부르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정 영 철

수필 | 전시가요 《조국보위의 노래》를 들으며

흔히 전시가요라고 하면 총포탄이 우박치는 전쟁의 나날에 창작보급된 노래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여난 첫 전시가요가 있다. 전화의 나날 싸우는 고지와 마을들에서는 물론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가요 《조국보위의 노래》이다.

하다면 우리 인민은 어이하여 전쟁전에 창작된 《조국보위의 노래》를 첫 전시가요라고 부르며 사랑하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첫 전시가요에 대하여 말할때 우리는 그 가요를 탄생시켰고 그 노래와 함께 승리를 떨친 우리 인민이 과연 누구들이였는가에 대하여서부터 먼저 말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인민,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뼈아프게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비참한 인민이였다. 죽어서 묻힐 땅이 없고 살아서도 조국이라 부를 곳이 없던 수난많던 우리 인민에게 진정한 인민의 나라, 참다운 인민의 조국을 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인민의 새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체득한것은 무엇이였던가.

여기에 3대머슴군으로부터 공화국영웅으로 극적인 운명전환을 한 한 인간의 빛나는 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가난한 화전민의 가정에서 출생한 그에게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머슴살이를 하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넘겨준것은 지주집팔머슴이라는 노예의 멍에였다. 징용으로 저주로운 일본땅에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을때 그는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아보았다. 조국은 3대머슴군이였던 그에게 땅을 주고 자기의 이름석자를 쓰는 법을 배워주었으며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워주었다. 해방된 이듬해에 당원이 된 그는 이토록 고마운 품을 지키기 위해 손에 스스로 조국수호의 무기를 잡았다.

조국의 귀중함을 뼈속깊이 새긴 우리 인민이였기에 해방후 5년동안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커만 갈수록 다시는 목숨같은 조국을 빼앗길수 없다는 조국수호의 신념으로 더더욱 심장을 불태웠다.

바로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창작된 가요가 《조국보위의 노래》였다.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 그 품을 지켜 한목숨 바치려는 결사수호의 의지, 감히 우리 조국을 넘보는 가증스러운 원쑤들에 대한 무한한 증오의 감정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창작된 조국수호의 노래였다.

조국을 잃으면 또다시 노예가 되고 우리의 행복을 지키자면 손에 총을 잡고 침략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밝힌데 바로 이 노래가 전쟁시기에 창작된 가요는 아니지만 첫 전시가요로 되는 근거가 있다. 가요는 나오자마자 전체 군대와 인민들속에 급속히 파급되여갔다.

전시가요창작의 목적은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조국수호전에 총동원하며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데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가요 《조국보위의 노래》는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준엄한 정세의 흐름속에서 자기들이 서야 할 위치를 깊이 새겨주었고 조국수호전에 파감히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함으로써 첫 전시가요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가요 《조국보위의 노래》가 태여난 때로부터 얼마후 원쑤들의 무력침공으로 하여 전쟁이 일어나자 노래는 싸움터마다에서 승리의 개가로 힘있게 울려퍼졌다.

평화시기에 태여난 첫 전시가요,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수호정신이 얼마나 투철하였으며 자기 조국, 자기 공장, 자기 일터와 마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수 있다. 이런 군대와 인민을 과연 어떤 적이 당해낼수 있단 말인가.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이 전쟁전에 창작된 《조국보위의 노래》를 전시가요로 부르며 사랑하고있는것은 비단 그 노래가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는데만 있지 않다.

우리 조국의 첫 전시가요인 《조국보위의 노래》에는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재부인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이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위대한 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약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세년년 《조국보위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사회주의를 끌까지 지키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유 광 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위훈 영원히 빛나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의 빛승의 위력을 높이 떨쳐가는 승리자들의 강용한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각지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우리 인민은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고 조국의 하늘가에 전승의 축포를 터쳐올렸던 그날의 환희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쳐흘렀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영웅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세기를 이어 빛내여오신 불세출의 전설적령장들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을 찾은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묵숨도 서슴없이 바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중앙과 지방에서 전승절을 맞으며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은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현악합주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관현악 《문경고개》, 《7.27행진곡》을 비롯한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진두에 모시고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장중한 울림과 정서적인 선률에 담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평양대극장앞에서와 봉화예술극장에서 있은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전승절의 경축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전쟁의 3년간》,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노래들이 공연장소들에 울려퍼졌다.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승리의 찬가들은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수령의 부름따라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영웅적위훈을 떨친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을 이어 주체조선의 영원한 7.27을 안아올 불같은 열의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평양교예극장과 국립교예단 요술극장에서는 종합교예공연과 요술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는 단막극 《앞서가는 처녀들》 공연이 있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도예술단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이 출연하는 전승절경축공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전승의 노래》, 《위대한 전승의 력사대를 이어 떨치리》 등이 펼쳐졌다.

설화와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기악과 노래 《결전의 길로》, 녀성중창 《근위부대자랑가》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희세의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떨쳐온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영광만이 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황해남도안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출연하는 전시가요무대에서도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를 계승하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영원한 전승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갈 신념의 노래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7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길에서 뜻깊은 전승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끝없는 환희로 설레이는 무도회장에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였다.

참가자들은 락월한 군사사상과 령활한 전략전술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시고 영웅조선의 빛나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승리의 축포가 오르던 전승의 열병광장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리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정의 환호인양 무도회장에 《7.27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등의 노래가 련이어 메아리쳤다.

참가자들은 불멸불휴의 선군령도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여 이 땅우에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군님 백마타고 달리신다》를 비롯한 노래들을 합창하며 춤률동을 이어나갔다.

《전선에서 만나자》, 《청춘송가》 등의 경쾌한 노래장단에 맞추어 참가자들은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을 이어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열의에 넘쳐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청년전위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그 품이 제일 좋아》의 노래가 울리는 속에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7.27의 력사와 전통을 끊임없이 빛내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전위투사의 영예를 떨쳐갈 청년학생들의 혁명적기상을 잘 보여준 무도회는 노래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끝났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페막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가 페막되였다.

경기대회기간 선수들은 민족의 넋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는 세계적인 강자가 될 드높은 열의를 안고 강의한 정신력과 필승의 의지, 특기들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몸무게급에 관계없는 태권도맞서기경기에서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 선수들이, 단체맞서기경기에서는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남자)과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이, 몸무게급별 개인맞서기경기에서는 자강도태권도선수단,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중앙체육학원의 남자선수들과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자강도태권도선수단의 녀자선수들이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바둑개인경기에서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의 남, 녀선수들이, 바둑혼성복식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이, 바둑남자복식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이, 바둑녀자복식경기에서는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이, 바둑단체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폐막식이 27일 태권도전당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김춘식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우승한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들이 수여되였다.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 배능만동지는 폐막사에서 모든 선수, 감독들이 우리 식의 우월한 경기전법과 전술들을 적극 창조하고 활용해나가며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로 값높은 삶을 누리는 영광과 행복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뜻깊게 진행되였다.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지금 대회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높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화의 그날로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들이 조국앞에 세운 빛나는 위훈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것입니다.》

당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용감히 싸워 승리의 7.27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멸의 위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전체 전쟁로병들에게 머리숙여 뜨거운 인사를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승리의 날, 전승의 명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감격도 가슴벅찬데 전우들의 넋이 깃들어있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특전을 지녔으니 전쟁로병들의 격동된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기쁨과 행복에 넘쳐 이야기꽃을 펼치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의 흥분어린 목소리를 아래에 전한다.

* *

우리의 눈앞에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는 전쟁로병들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로 값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전구강전쟁로병은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여 새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성대하고 의의깊은 대회에 전쟁로병들을 또다시 불러주시여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뜨거운 인사를 하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를때 눈물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전사가 령도자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것이 도리일진대 오히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니 이 심정을 어떻게 터놓았으면 좋겠는지 정말 모르겠다.

세상에는 조국을 지켜싸운 전승세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전쟁로병들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각별한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여생을 행복속에 보내는 전쟁로병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조국은 곧 수령이며 수령을 한목숨바쳐 받드는 길에 조국의 존엄과 영예도 있고 강성번영도 있다는것이 전승세대가 오랜 세월의 인생체험을 통하여 간직한 진리이고 죽어도 버릴수 없는 혁명신념이다.

그래서 나는 전체 전쟁로병들의 마음을 합쳐 세 세대 일군들과 군인들, 청년들이 우리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더 잘 모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멀고 험한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안녕을 지켜드리고 로고를 덜어드리며 그이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여 태양의 나라를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여줄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박주홍전쟁로병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영광의 그 시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전쟁로병들에게 돌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뜨겁게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에 격정을 금할수 없다.

숙소에 돌아와 영광의 순간을 돌이켜보니 그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한 전우들생각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다.

조국수호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우리 전승세대를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며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먼저 간 전우들의 심정까지 합쳐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 또 드리였다.

세상에는 로병들이 많지만 자기들처럼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과 혁명에 필요한 세대로 사는 복받은 전쟁로병들은 없다고 하면서 박종식전쟁로병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인생말년에도 당과 혁명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이 땅에 태를 묻은 조국의 아들딸로서 전쟁에서 피흘린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고있는 우리들을 은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에 정말 머리가 숙어지고 온넋이 끌린다.

조국땅 그 어데서나 전쟁로병들을 귀중한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내세워주며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는 미담들이 봄날의 화원처럼 꽃펴나고있다.

우리가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알고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주었고 아무런 불편없이 평양으로 갈수 있게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에도 우리 전쟁로병들이 로당익장하며 생을 빛내일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웅심깊은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사회적기풍이 온 나라에 공기처럼 차넘치기때문이다.

리영태전쟁로병은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여 멸적의 포성을 높이 울리던 전화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슴이 부풀어오르고 승리의 신심이 넘친다.

나는 전쟁때 포병으로 싸웠다.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용감히 싸우던 전화의 그날들이 눈에 선하다. 그때를 돌이켜볼 때면 나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지녔던 조국수호정신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가.

력량상으로나 무장장비로나 우리는 적들과 대비도 되지 않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그것으로 우리는 적들과 싸워이겼다.

지난 2월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경축하여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을 보면서 격정을 금치 못하던 순간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가 피로써 지킨 이 땅,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우리 조국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더욱 빛내여가고계시니 우리 인민은 정말로 수령복, 장군복을 타고난 인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주 전쟁로병인 내가 서야 할 위치와 본분에 대해 생각하군 한다. 대회에 참가하고보니 더욱 그렇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꿋꿋이 이어주기 위해 남은 생을 깡그리 다 바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육체적로쇠는 있을수 있어도 정신적로쇠는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김일문전쟁로병은 애국충정의 꽃을 계속 피워갈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위대한 전승세대의 투쟁정신의 근본핵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후대들에게 피줄기처럼 이어주며 조국앞에 지닌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최후승리의 기치이시다.

불타는 전호가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혁명가요들을 부르고 결사전을 앞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맹세문을 올리던 전승세대처럼 후대들이 혁명적수령관을 뼈에 조아박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로 빛내일수 있게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겠다.

이번 대회에서 인민군대와 청년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조선인민군 장령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의 결의토론을 들으면서 우리 조국의 승리의 력사는 영원히 이어질것이라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남상진전쟁로병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세대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가장 값높은 정신적재부로 물려받았다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끌끌하고 자랑스러운가.

쏟아지는 불비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절절히 그리고 최고사령부의 안전을 위함이라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진속에 서슴없이 뛰여든 전세대들처럼 우리 후대들도 수령사수, 수령보위를 백승의 표대로 틀어쥐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보위하는 천겹만겹의 천연요새, 억척의 무쇠방탄벽이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그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영웅신화가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본사기자

어랑천5호발전소 준공식 진행

어랑천5호발전소가 훌륭히 완공되였다.

어랑천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일떠섬으로써 함경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준공식이 2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위원장 리히용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오경석동지, 관계부문, 발전소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어랑군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리히용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경북도에 대동력기지를 일떠세울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장을 찾으시고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끌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완공된 어랑천5호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연설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어랑천5호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이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위훈을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능률적인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물길굴뚫기, 잠관공사 등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말하였다.

드높은 경쟁열풍속에 발전기실을 비롯한 발전소의 여러 건설대상들이 완공되였으며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발전소일군들과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발전소관리운영을 과학화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발전기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송배전계통에서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발전소건설과 전력생산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전국단고기료리경연 진행

전국단고기료리경연이 25일과 26일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려명거리에 있는 료리축전장에서 있었다.

전통적인 민족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삼복철의 중복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경연에는 부문별, 지역별 예선경연에서 선발된 여러 단체의 료리사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은 초벌가공된 단고기를 가지고 지정된 시간안에 료리사들이 현장에서 만들어내놓은 단고기장과 단고기료리들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민족의 우수한 료리제법들을 적극 살려 단고기료리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 터득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평양단고기집, 창팡봉사관리국의 료리사들이 훌륭한 료리기술과 가공솜씨로 단고기장의 고유한 맛과 색갈을 잘 살린것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료리의 익힘정도와 썰은 맛 등 심사지표에 따르는 요구들을 지키면서 문화성과 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경흥지도국, 모란봉구역종합식당, 함경남도 료리사들의 단고기내포백숙, 단고기순대료리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민족적향취를 더해준 이번 경연에서는 평양단고기집이 특등을, 창팡봉사관리국이 1등을 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와 료리사들에게 상장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제12차 전국소학교축구반축구경기대회, 제8차 전국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축구반 축구경기대회 진행

제12차 전국소학교축구반축구경기대회와 제8차 전국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축구반축구경기대회가 17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육체기술지표판정경기와 축구경기로 나뉘여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들에는 각 도, 시, 군에서 선경기들을 통하여 선발된 우수한 남, 녀선수 1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높은 체육기술과 육체적능력,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함으로써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축구선수후비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자기들의 름름한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소학교부문에서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서성구역 와산소학교 녀자선수들이 각각 1위를 하였다.

초급중학교부문에서는 중구역 동흥초급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 녀자선수들이, 고급중학교부문에서는 대동강구역 청류고급중학교 남자선수들과 락랑구역 룡일거리고급중학교 녀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26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학교들과 선수, 교원들에게 우승컵, 메달, 기술상, 표창장 등이 수여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압록강체육단에서
남자 압록강:갈매기
녀자 압록강:제 비

청소년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주에 진행된다.

바드민톤 남, 녀경기가 남포체육관에서, 수구 녀자경기가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29일부터 시작된다.

성천강체육단에서 31일부터 예술체조경기가, 레성강체육단에서 8월 1일부터 송구 남, 녀경기가 력기 남, 녀경기는 8월 3일부터 청진시 수남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배구 남, 녀경기는 8월 4일부터 청춘거리 배구경기관에서 진행되게 된다.

29일(일요일) 오후 평양체육관에서 4.25체육단, 평양체육단을 비롯한 7개 단체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여러 몸무게급별 권투경기가 있게 된다.

이날에 진행되는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과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자 1부류축구련맹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월미도:선 봉
평 양:려 명

중국외교부대표단 귀국

공현우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외교부대표단이 27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이날 대표단은 룡라곱등어관을 참관하였다.

뚜르크메니스딴 외무성대표단 귀국

웨바 하취에브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뚜르크메니스딴외무성대표단이 27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체류기간 대표단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교원대학, 미림승마구락부 등을 참관하였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 도착

리창흥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2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총련지부위원장회의 도쿄에서 진행

총련지부위원장회의가 2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 총련지부, 본부위원장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제시하신 지부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본부위원장들과 지부위원장들이 총련의 기층조직건설과 활동에서 전환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허종만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총련지부를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가속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부를 중시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의 전환적이고 격동적인 시대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신 총련건설방침의 중심문제이며 그 관철은 현시기 총련앞에 나선 가장 절실한 과업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지부중시사상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 기층조직건설과 활동에서 전환적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은 지역적지도단위인 총련본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특히 총련지부위원장들은 지역적거점인 지부사업을 직접 담당한 주인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본부위원장과 지부위원장들이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충실성으로 가슴 불태우면서 맡은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참신한 사색과 거세찬 공격정신으로 투쟁하여야 지부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부위원장들이 지부중시사상을 지역적지도단위 조직건설의 기본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지부에 대한 지도방조사업계획을 바로세우고 우선 본부위원장 자신이 지부위원장들과의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그는 지부위원장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축하문에서 제시하신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자기 사업의 신조로,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동포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부위원장들이 맡은 기층조직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철옹성같이 다져나가자면 지부와 분회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새 전성기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관하분회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꾸려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지부위원장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거점에서 주인이 되여 애족애국운동을 책임적으로 작전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교육사업을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으며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는것과 함께 민족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을 실정에 맞게 벌려 동포동네가 흥성거리도록 하고 격동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운동과 조국지원사업, 대외활동을 지부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게 짜고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각 지부위원장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기층조직의 건설과 활성화를 위한 일대 투쟁에 총궐기하여 지부를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다져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끝으로 허종만의장은 총련지부위원장들이 모든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상부상조의 미풍과 따뜻한 정이 흘러넘치는 화목한 동포동네로 꾸려나가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사대국화를 한사코 실현하려는 간특한 술책

아베일당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얼마전 내각관방장관 스가는 신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를 배비하려는 지역에 찾아가 진행한 강연에서 우리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정부의 최대의 책임은 국민들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것이라고 떠들었다. 방위상 오노데라도 신형요격미싸일체계의 배비후보지를 찾아가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국민안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지스 어셔》를 배비하려는것은 현지주민들의 증대되는 우려와 불만을 녹잦히면서 군사대국화를 한사코 다그치려는 간특한 술책이다.

일본은 조선반도에서의 극적인 정세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되돌려세우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의 대응단이 세상에 공포되기 바쁘게 일본당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뚤어진 심사를 드러냈다. 해외를 돌아치며 《〈미소외교〉에 헛눈 팔아서는 안된다.》는 등 악의에 찬 나발을 불어댔다. 지금도 꺼하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을 운운하고 있다.

조선반도에 형성되고있는 화해, 완화의 기류를 한사코 가로막고 긴장격화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는 일본의 시도는 군비증강책동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미국의 신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를 구입, 배비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때문에 자민당내부에서도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미조관계가 변화되고있는 조건에서 해당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주변나라들도 일본당국이 신형요격미싸일체계를 배비하기로 결정한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리유와 구실이 어떻든 《이지스 어셔》의 배비가 미국의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 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요소를 창설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러한 행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노력에 배치되며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지스 어셔》는 공격미싸일도 발사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이지스 어셔》에 순항미싸일을 탑재할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자위대》가 전쟁마당에 뛰여들려 한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아베패거리들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위협》을 걸고 전쟁국가수립을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군국주의일본이 패망한 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일본사회에는 패전으로 인한 좌절감과 염전분위기가 자리잡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아베패당은 《위협》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의 머리속에 복수주의,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키면서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위협》설을 떠드는 데는 국제사회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려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일본《자위대》의 방대한 륙, 해, 공군무력은 《전수방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일본반동들은 장거리작전이 가능한 최신에스껠스전투기, 항속거리가 1만 2 000km이상인 공중급유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장비들까지 끌어들이고있다. 이러한것들이 결코 방어용이 아니라는것은 너무나 자명한것이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일본은 군비증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자민당은 정부에 제출한 제언서에 나토가 국내총생산액의 2%를 군사비로 지출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정세가 《전후 최대의 위기적인 상태》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령토를 지켜내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군사비를 현재의 배로 늘여야 한다는 내용을 쪼아박았다.

아베패당은 무모한 군비증강, 군사대국화에 광분하면서 우리의 《위협》을 부각시켜 저들의 재침책동을 합리화해보려 하고있다. 《아시아맹주》의 옛 지위를 되찾으려는 일본반동들의 위험천만한 군사대국화, 재침움직임은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응당한 경계심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베일당이 《국민안전》을 운운해도 일본인민들자체가 믿지 않고있다. 일본인민들은 오히려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는 당국의 책동이 초래할 후과에서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이 《국민안전》타령을 늘어놓을 때마다 지지를 받기는커녕 경계심만 자아내고있는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아베패당이 《안전》에 대해 피대를 돋구고있을 때 일본 각지에서는 《이지스 어셔》의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되였다.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요격미싸일체계도입은 주변나라들의 위협만 몰아올뿐이다, 《안전》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는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정부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일본당국이 진정으로 《국민안전》을 바란다면 전쟁국가를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이제라도 군사대국화야망으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지역의 평화적흐름에 발을 맞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리 현 도

영국단체들 박근혜역적패당의 살륙흉계를 규탄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가 평화적인 초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박근혜역적패당의 음모가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박근혜역도가 썩어빠진 파쇼통치를 반대하여 거리에 떨쳐나선 초불시위참가자들을 무력으로 탄압할것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범죄적음모를 꾸민 박근혜와 그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것을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하루빨리 폐간되여야 할 사이비언론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의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보수언론을 폐간할것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가 력사적인 관문점수뇌상봉을 기념하여 출품된 청소년들의 작품들의 일부 표현들을 외곡편집하여 《종북》소동에 악용하고있다고 단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참가자들은 《조선일보》가 시대착오적인 《종북》소동과 합법적인 통일운동에 대한 비방책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 시기 친일과 사대매국, 반민주적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러온 《조선일보》를 즉시 폐간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문점선언 부정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평화번영시대에 역행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청소년에게도 〈종북〉몰이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조선일보〉폐간으로 언론적폐 청산하자!》라고 웨쳤다.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는 이들의 투쟁은 사회 각계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일보》는 력대로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고 독재권력에 아부추종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정의를 말살해왔다.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일보》는 남조선의 대표적인 극우보수언론으로서 박정희역도의 집권시기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강화하면서 《유신》독재체제를 극구 찬양하였다.

그 이후에도 군부독재자들과 보수집권세력의 하수인, 여론몰이군노릇을 하며 민심을 어지럽히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운동을 악랄하게 방해하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박근혜《정권》을 비호두둔하는데서 그 누구보다 앞장섰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이 터져나와 박근혜가 극도의 곤경에 처하였을 때 청와대에 엇서며 사건수사를 지휘하던 전 검찰총장의 허물을 공개하여 그가 어쩔수 없이 사퇴하게 만든것만 놓고도 《조선일보》가 역도의 손발노릇을 얼마나 잘해왔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 악질보수언론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리적》, 《종북》의 모자를 씌워 보수당국에 탄압의 구실을 제공해준것도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통일위업을 해치는 암적존재인 《조선일보》의 추악한 정체를 날날이 폭로해주고있다.

분렬된 이 땅에 존재하는 언론이라면 마땅히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열망을 반영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애국적인 언론활동을 벌려야 한다.

하지만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극도의 적대심에 물젖은 《조선일보》의 어용매문가들은 매일과 같이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오도하는 반공화국모략기사들을 토해내면서 북남대결을 부추기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들을 저질렀다. 특히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미국과의 《동맹》이 무너지고 《안보위기》가 고조된다고 아부재기를 치며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짓밟아버리려고 지랄발광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관계개선의 기운이 고조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조선보수언론들은 우리에 대한 악선전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이 사이비언론들은 우리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취하고있는 대범한 조치와 성의있는 노력들에 대해 《위장평화공세》라고 악담질을 해댔는가 하면 《남북관계를 대화로 푼다는것은 환상이다.》, 《북에 리용당할수 있다.》, 《북에 단호한 메쎄지를 보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조선내부에 반공화국적대의식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회의감을 고취하려고 발악하였다. 그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은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대결의 빗장을 더 깊숙이 질러놓으려는 극악한 반민족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시대에 백해무익한 언론의 탈을 쓴 매국반역집단이다.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에 한사코 도전하면서 동족을 모해하고 헐뜯는 악선전놀음에 미쳐날뛰는 보수매문가들의 엄청난 죄악은 력사가 날날이 기록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지난 시기 보수집권세력을 등에 업고 온갖 잡설과 모략선전으로 민심을 기만우롱하고 북남관계파국을 조장한 쓰레기매문가들을 철저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언론적폐청산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대결을 부추기며 민족을 반역하는 보수언론들의 죄악을 단죄규탄하고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엄 수 련

보수야당들의 구태의연한 계파싸움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대참패이후 사상 최악의 정치적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남조선의 보수야당들속에서 파벌싸움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우선 지방자치제선거이후 한달이 넘도록 게파싸움만 일삼고있는 《자유한국당》내부가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내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여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존의 계파외에도 복당파와 잔류파, 당권파와 중립파 등 별의별 계파들이 새로 생겨나 서로마다 정치적리해관계를 실현하려고 치렬하게 물고뜯고있다.

실례로 일부 친박계패거리들은 《자유한국당》에 이제 더는 친박이란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잔류파로 자처해나서고있다.

한편 홍준표가 당대표자리에서 쫓겨난 이후 비어있는 당지도부자리들을 차지할것을 꿈꾸는자들은 당권파를 형성하고 복당파를 비롯한 비박계와 함께 친박계를 공격하고있다.

이런 공세에 친박계패거리들은 또 그것들대로 비박계를 계속 헐뜯으면서 원내대표이며 복당파인 김성태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련일 피대를 돋구고있다. 친박계패거리들은 그에만 그치지 않고 박근혜역도의 탄핵이후 기여들어갔던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보수계의 떨거지들을 다시 규합하면서 저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자유한국당》내의 각 계파들 사이의 대립파 갈등은 당지도부 선출과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문제 등을 놓고 더욱 표출되고있다.

원래 김성태를 비롯한 비박계패거리들은 새로 선출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인적쇄신》과 《국회》의원후보추천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부여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저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노린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친박계패거리들은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무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될 때까지 당을 관리하는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는 림시관리기구일뿐이라고 하면서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대참패이후 《자유한국당》내 내부가 여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당권장악을 노린 계파싸움만 치렬해지고있는 속에 그에 환멸을 느낀 남조선 각계는 물론 보수지지층속에서까지 이런 당은 이예 없어지는게 낫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갈등이 최악의 상황에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반역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외부에서 끌어들인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김병준이라는자가 들어앉기는 하였지만 벌써부터 남조선에서는 《국회》의원후보추천권과 같은 실권이 없는 김병준이 당을 《혁신》하지 못할것은 뻔하다고 하면서 보수는 날개도 없이 추락하게 될것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김병준을 가리켜 새로운것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당내에 기반파 지지세력이 없는 김병준이 각 계파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다른 보수야당들의 처지도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를바 없다.

《바른미래당》내에서는 합리적보수로 자처하는 《바른정당》 출신들과 중도진보를 주장하는 《국민의 당》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국민의 당》파는 자기들이 지금과 같은 곤경에 빠지게 된것은 구시대적인 보수색갈을 지우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리념을 중도보수로부터 중도진보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바른정당》출신 인물들이 《자유한국당》파의 통합을 고집하는데 대해서도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야당패거리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내와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대통합론》을 들고나오는가 하면 경제문제를 여론화하면서 저들을 《민생정당》으로 광고하여 민심을 끄당기고 어떻게 하나 멸망의 운명을 모면하려고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떠드는 《보수대통합》이란 저들이 보수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방을 짓눌러버리기 위한 《통합》일뿐이다. 이자들은 겉으로는 경제와 민생에 대해 걱정하는척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민생이야 어찌되든 권력욕에 미쳐 파벌싸움에만 온 정신을 팔고있다. 이런 치유불능의 고질적인 악폐에 깊숙이 빠져있는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가련한 운명을 건질수 없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며 계파싸움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제명을 다 산 력사의 뒤물들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우두머리교체로 달라질수 없는 역적당의 운명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김병준이라는자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로 들여앉혔다.

이것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참패한 후 《쇄신》과 《변화》의 간판밑에 취한 첫 조치이다.

지금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김병준을 비상대책위원장자리에 앉히면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탄생시킬것》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역적당의 본색은 달라질수 없으며 따라서 그 처지도 바뀌지 않을것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견해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자리에 들어앉은 김병준은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초불투쟁이 한창 벌어지던 때에 《국정마비사태를 막겠다.》고 하면서 박근혜《정권》의 《국무총리》직 지명을 수락하였던자이다.

최근에는 이자가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가 새로 공개되여 여론을 집중시키고있다.

《SBS》방송은 이자가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의 강원도지역 대표의 초청을 받고 골프를 치면서 기념품과 식사대접 등으로 약 118만원의 돈을 탕진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진상규명을 의뢰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역적당패거리들이 아무리 《쇄신》과 《변화》의 간판밑에 당사를 옮기고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데려다 앉히면서 발악해도 정해진 운명은 달라질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우두머리나 교체한다고 하여 당의 운명이 달라질수 없다, 진짜로 당을 혁신하려면 현직 《국회》의원전원이 사퇴하고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

남조선단체 권력람용행위를 덮어두려는 법원당국을 단죄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민변은 단체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음모가 담겨져있는것으로 알려진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포함하여 사법행정권을 람용한것과 관련된 410건의 문건들을 공개할것을 법원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 한 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개할수 없다.》고 하면서 민변의 신청을 기각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은 대법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신청을 기각하려고 어떤 론의를 기쳤는가를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사법행정권람용의 피해자로서 응당 문건내용을 알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원당국을 단죄하였다.

법원행정처가 문건공개를 거부한 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1920년대부터 시작된 조직적인 성노예사냥

세계는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국가적강권을 발동하여 유괴, 랍치하고 침략군의 성노예로 전락시킨 일제의 몸서리치는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직도 일제의 성노예범죄력사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군성노예제도가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다시말하여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부터 패망할 때까지의 기간에 존재한것으로 인식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사실상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1920년대부터 저들의 성노예로 끌어가기 시작하였다. 1918년의 씨비리출병때 란잡한 성행위때문에 성병이 만연되였던것을 고려하여 일제는 장기적인 침략전쟁수행에서 성병에 의한 전투력감소를 막기 위하여서는 성노예제도를 내와야 하겠다는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때부터 일본군내에서는 《위안소》들이 설치 및 운영되게 되였다.

그것은 1929년에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던 리경생녀성의 증언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일본놈들은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것이 마치도 중일전쟁이후부터인것처럼 변명하는데 내가 겪은 치참한 운명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1920년대부터였다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나의 고향은 함경북도 어랑군이다. … 내가 12살때인 1929년 8월 어느날 밤이였다. 칼을 차고 장총을 멘 일본경찰놈들이 구장놈을 앞세우고 불쑥 지주집마당에 들어섰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내가 자는 사랑채에 뛰여들었다. 놈들의 거센 손아귀에 목덜미를 잡힌 나는 얼이 쑥 빠져나간채 대문밖으로 끌려나와 화물자동차에 짐짝처럼 실리였다. 불의에 당하는 일이여서 나는 소리도 치지 못했고 울지도 못하였다.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 도망치는 자동차적재함우에서 허우적이던 나는 앞쪽에 무엇인가 서로 엉켜있는것을 가려볼수 있었다. 그것은 짐짝이 아니라 내또래의 처녀애들이였다. 그들 역시 강제랍치된 10대의 소녀들이였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나를 포함하여 4명의 소녀들이 또다시 바깥도 내다볼수 없는 유개차에 실려 경상남도 창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른아침이였다. 거기에는 20여명의 조선인소녀들이 이미 끌려와있었다. …나는 8명의 내또래들과 함께 또 짐차에 실려 철조망을 높이 친 비밀공장에 실려갔다. …비밀화학공장 같았다. …우리는 복도량쪽에 번호가 붙어있는 9개의 호실에 뿔뿔이 갈라져 수용되였는데 나에게는 8호실이 차례졌다. …이때부터 출입문에 일본인보초가 서게 되여 우리 아홉명은 한지붕밑에 살면서도 서로 만나는것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보통날에는 7~8명, 일요일에는 15~20명이나 되는 일본감독놈들과 군인들의 성욕을 채워주는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고 증언하였다.

치욕으로 가득찬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가 알려지는것이 두려워 리경생녀성은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가정을 이룬 후에도 남편에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치와 모멸로 찢길대로 찢겨진 마음속상처가 못견딜 정도로 쓰리고 아팠지만 그는 이것을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비밀로 간직하려고 마음먹었던것이다. 이 기간 그가 당한 정신적고통을 무슨 말로 다 설명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리경생녀성은 후날 스스로 증언석에 나섰다. 파연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수치감을 이겨내면서 진실을 까밝히고 불의를 폭로하는 마당에 서게 하였겠는가.

그것은 성노예범죄력사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면서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행태였다. 꽃망을 파도 같은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전락시킨 일제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무쳤는데 그 후손들이라는자들까지도 그토록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으니 어찌 분노와 증오심이 활화산처럼 타오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하기에 1992년에 있은 증언에서 리경생녀성은 일제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청춘을 유린당하고 인간의 모든 권리를 짓밟히운 체험을 가지고 일본당국을 단죄함으로써 가슴에 얼어붙은 피덩어리를 녹이고 죽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의 과거사를 공개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증언으로 일제가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성노예로 만든 행위가 1930년대부터가 아니라 1920년대부터였다는 새로운 력사적사실이 폭로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세계최대의 랍치국가로서의 일본의 진면모가 보다 적라라하게 밝혀졌다.

본사기자 안 철 권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반부패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가 22일 인민주권민족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부패와의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부패와의 싸움은 정부와 경찰의 과업일뿐아니라 전사회적과제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사이의 단합이 나라에서 부패를 반대하는 주요수단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그릇된 처사 배격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20일 《유태민족국가》법을 채택한 이스라엘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는 유태복고주의정권이 팔레스티나령토를 강점하고 그 령토의 실제적인 주인들을 학살한 대가로 수립되였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이 인종주의적본성을 다시금 똑똑히 드러냈다고 까밝혔다.

그는 팔레스티나와 이슬람교나라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은 총국적으로 이스라엘의 인종차별과 민족격리정책에 종지부를 찍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격화되는 로씨야-나토대립

얼마전 나토가 마께도니아와 기구가입에 관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나토사무총장은 마께도니아와의 회담시작을 알리는 서명식에서 마께도니아수상에게 《당신들의 국가적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마께도니아는 이 기구의 30번째 성원국이 될것이다.》고 언급하였다.

마께도니아의 나토가입움직임은 지난해 쯔르나고라가 나토의 29번째 성원국으로 정식 가입한 이후에 더욱 활발해졌다.

나토는 이전 동유럽사회주의 령역안에 있던 나라들을 기구에 가입시키면서 군사작전범위를 로씨야국경쪽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맹렬히 추진시키고있다.

현재 로씨야국경과 린접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문제도 거론되고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로씨야와 나토간의 대결구도가 로씨야에 불리하게 형성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나토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로씨야가 경계감을 표시하고있다.

로씨야태통령공보관은 나토는 랭전시기의 산물로서 대결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구이다, 나토의 장기전망적인 행동 즉 로씨야국경에로의 진출 및 군사하부구조의 확대가 매번 나토의 이러한 본질에 대해 확증해주고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는 특히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시도에 크게 반발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한 회견에서 린접국들의 나토가입은 자기 나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지 않을수 없다고 못박았다.

외신들은 로씨야와 나토가 각기 자기의 전략적목적과 리해관계실현에서 한발자국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로씨야와 나토간의 대립은 나날이 격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

ㄱ-181117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